

"구성원 지혜 모아 미래 준비"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 8일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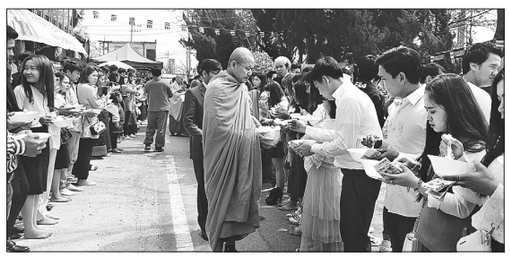
조성민 동국대의료원 제19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취임했다.

동국대의료원은 4월 8일 5층 대강당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했다.

조성민 신임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원의 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을 재수립하라는 소명을 엄중히 받들겠다"며 "의료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민 제19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진료부장, 동국대의료원 기획처장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캄보디아 새해행사 '쫄츠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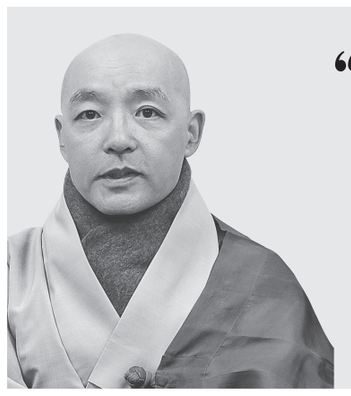
마하이주민센터, 이주민 400명 초청

꿈을이루는사람들 산하 구미마하이주민센터(센터장 구병화)는 4월 7일 캄보디아 새해행사인 '쫄츠남'을 개최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달리 태양과 캄보디아가 수직선상에 있는 양력 4월15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쫄츠남' 행사에는 대구 · 경북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 이날 행사에 앞서 법회가 봉행됐으며 탁발의식, 캄보디아 전통음식 시식, 전통게임 등이 진행됐다. 최근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폴린(25) 씨를 위한 기금마련도 이어졌다. 또한 구미 영제한의원(원장 김경태)은 평소 병원에서 진료 받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어나간다고 생각한다"며 " '미래를 겁내지 말고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캄보디아 속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으로 일궈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발전의 동량 되겠습니다"

Interview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수석 법등 · 지현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외포교 · 복지 현장 전문가
경험 토대한 발전방안 기술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
"스님도 이젠 전문가 돼야"

"1급 승가고시는 논술, 구술, 면접이 이어지는데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진솔하게 답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법등 스님 · 사진 왼쪽)

"더 훌륭한 스님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제가 수석을 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훌륭한 선현들께서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소임을 다하면서 후배를 이끌겠습니다."(지현 스님 · 사진 오른쪽)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인 호주 정법사 주지 법등 스님(비구)과 의왕 희망나래복지관장 지현 스님(비구니)은 수상 소감을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0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1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고 비구 · 비구니 수석 합격자를 포상했다.

1급 승가고시는 승납 2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합격하면 교구본사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 등 종단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고시 방법도 단순 필기시험이 아닌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포교 비전, 종단 발전안 등을 알 수 있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석합격자 스님들은 모두 포교와 사회복지 일선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법등 스님은 호주 정법사에서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으며, 지현 스님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고 있다.

1급 승가고시에서도 법등 스님은 해외포교를 통한 종단 발전 방안을, 지현 스님은 사회복지로써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스님 모두 1급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정진하겠다는 뜻이다.

법등 스님은 "호주 현지에서 교민들과 현지인에게 불교를 알리고, 공동체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교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선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불교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이 한국불교를 알릴 적기다. 종단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지현 스님은 "이제 스님들도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면서 "복지 분야에서 앞으로 노력하면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력할 후배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상식 직후에는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1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종덕 · 현덕법계 품수식이 봉행됐다. 이날 품수식에서는 비구 44명, 비구니 29명이 종덕과 현덕법계를 품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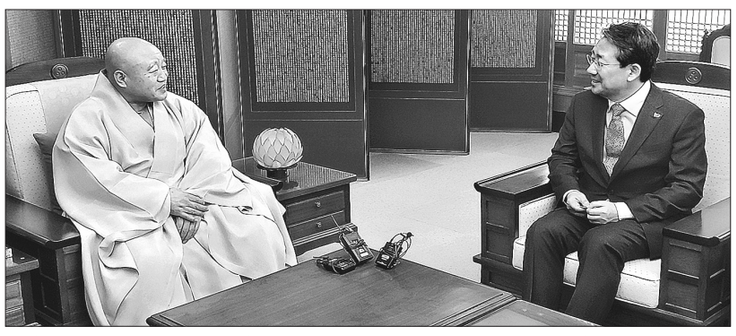
"국민 화합에 불교 역할 중요"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서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관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조계종을 예방했다.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계에 취임 인사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박양우 장관 예방을 받고, 불교계의 현안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 박 장관은 "13년 전 차관 때 예방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미디어뿐만 아니라 종교업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조계종을 찾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린다.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만큼 종교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양우 신임 문체부 장관이 4월 8일 조계종을 예방,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역대 장관 취임사 중 처음으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불교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와 유형문화의 대부분을 이룬다. 국가의 근간 문화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불교계의 힘으로 풀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고성 · 속초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원행 스님은 "현재 복구를 돕기 위해 신흥사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불교계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한 불교계 현안으로 거론되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숙제라고 생각하겠다. 어떻게 묘안을 낼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군장병 사기진작 업무협약

중흥사–제60사단 '명상 프로그램 보급'



북한산 중흥사(회주 지홍)는 4월 10일 육군 제60보병사단(단장 김덕영)과 장병들의 정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진행, 유적지 답사,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흥사 회주 지홍 스님은 "군장병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로 행복 충전"

화운사–NH농협 종로금융센터 MOU



용인 화운사와 NH농협은행 종로금융센터는 4월 10일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회기여에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화운사는 농협 종로금융센터 직원과 고객,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화운사 부주지 보경 스님은 "금융인과 고객들이 화운사에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 새로운 행복에너지를 충전해 가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韓日 불교교류 새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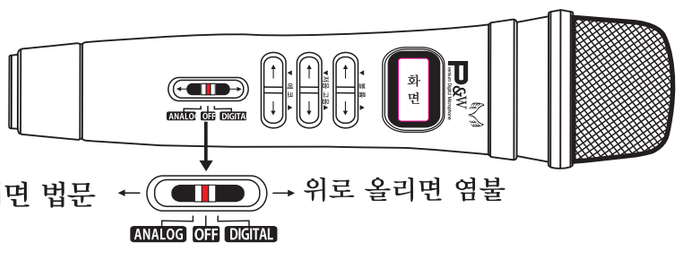
천불사 인경 스님, 新한일우호회 결성



한국과 일본 불교 대표자들이 상호 교류와 미래 평화를 위해 '신(新)한일우호회'를 결성했다. 천안 천불사 인경 스님 등 한국 측 스님 5명과 오시에 누시 등 일본 측 불교지도자들은 4월 7일 일본 다까야마시 일본종교재단 사무실서 '신한일우호회'를 결성하고, 매년 1회씩 정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초대 공동회장에는 인경 스님과 수구리 다까흐미 스님이 추대됐다.

윤호섭 기자

원톱시스템이란? : 한 번에 최고의 소리 시스템



오직 앰프 내장 마이크 하나만으로 마이크 2개 기능 동시 사용

앰프 내장 마이크 자체에서 마이크 2개 기능과 음량, 음질, 음색, 에코 조절 기능이 있어 법당 현장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가며 설법, 염불을 함으로 수 천번 염불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생 보물

▣ 현장 방문시 마이크만 가지고 일초에 구슬픈 소리, 장엄한 소리, 설법,소리 크게 작게 등 다양성을 보여 드림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